

선진국

장기전략리서치부 선진국팀

EU의 디지털세 도입과 영향

디지털세 도입 배경: 현행 과세체제의 한계, 유럽 내 디지털기업 육성

- 2018년 3월 21일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법안 발표
- 주요 대상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 등의 주류 디지털기업
- 현행 과세체제의 한계로 인한 과세체제 개편 필요성 증대와 유럽 내 전통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디지털산업 육성의 필요성 대두가 원인

유럽 내에서도 엇갈리는 찬반, 디지털세 도입에는 OECD권고안이 관건

- 2020년 1월1일까지 회원국들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찬성,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등은 반대입장을 표명
- 프랑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에 있음
- OECD에서도 디지털세 권고안을 제정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

디지털세로 인한 주류 디지털기업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율은 매출액의 3%수준, 주류 디지털기업의 유럽 내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면 요금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수준
- 다만, 디지털세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디지털기업 수익감소 리스크는 존재할 것으로 판단

2017년 디지털기업 매출 및 유럽 비중

기업	총매출(백만달러)	유럽 내 매출 (백만달러)	유럽 매출 비중(%)	본사 소재 국가
아마존	106,110.00	21,719.00	20	미국
이베이	9,567.00	3,609.00	38	미국
익스페디아	10,060.00	1,810.00	18	미국
페이스북	40,653.00	9,168.00	23	미국
구글	110,855.00	36,582.00	33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89,950.00	17,881.00	20	미국
넷플릭스	11,693.00	1,284.00	11	미국
RELX 그룹*	7,355.00	2,642.00	36	미국
세일즈포스	10,480.00	1,904.00	18	미국
스포티파이*	4,090.00	1,170.00	29	스웨덴
트위터	2,443.00	274.00	11	미국
SAP*	23,461.00	10,415.00	44	독일
오라클	37,728.00	8,524.00	23	미국
에어비엔비		비상장 기업		
우버		비상장 기업		

*: 백만유로

자료:PI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선진국] 유럽의 디지털세 도입과 영향

장기전략리서치부 선진국팀

디지털세 도입 배경

디지털세 도입 배경:
과세체제의 한계와
유럽의 산업구조

2018년 3월 21일, EU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에 대한 구체적 법안을 발표했다.

EU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계 매출이 7억5천만유로, EU내 매출이 5천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한다. 참고로 현행 세법은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수익이 인식되는 국가에서 순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과 다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는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의 특성상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영업장을 두지 않고도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하며 고정사업장 없이 무형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디지털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영업장을 두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실제 실리콘밸리의 다수 IT기업은 각종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에 지역본부를 세워 그 곳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에서 전통적 글로벌기업의 경우 평균 23.2%의 세율을 적용 받는데 비해 글로벌 디지털기업은 9.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기업이 높은 매출을 내고있는데 반해 기존 과세체제의 한계로 전통적 제조기업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조세형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EU와 회원국은 과징금 부과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디지털기업의 복잡한 수익구조와 조세우회제도로 인한 방법의 한계를 느끼고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세’와 디지털세가 적용되기 전 임시법안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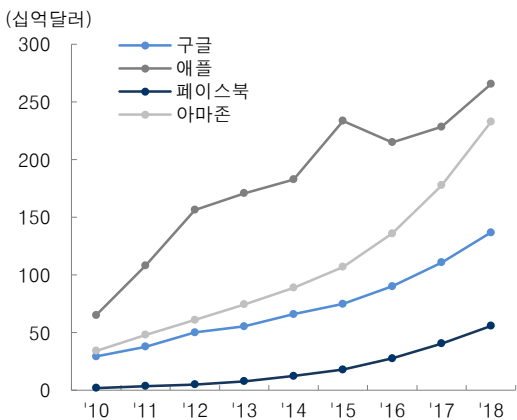
디지털세는 유럽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시도로 해석된다.

디지털혁명 이후 첨단 산업의 급성장 속에서 미국은 첨단화 물결의 선두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 결과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과 같은 디지털기업이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전통산업에 무게를 두고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기술발전과 값싼 노동력에 전통 산업분야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경제성장 동력 또한 사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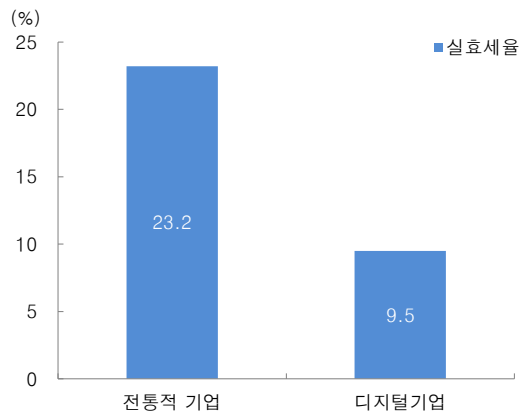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자국의 디지털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관세 개념의 디지털세 도입을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GAFA의 매출 증가 추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그림 2. 유럽 역내 글로벌기업 실효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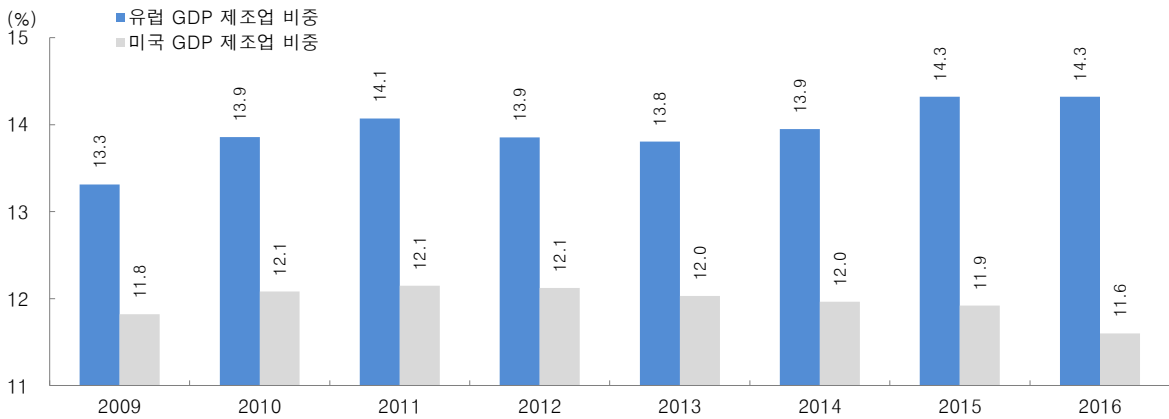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표 1. 디지털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기업	시가총액 (십억달러)	기업	시가총액 (십억달러)
네슬레	280.7	마이크로소프트	839.4
노바티스	230.9	애플	806.6
로슈 홀딩스	194.4	아마존	795.5
LVMH	170.0	알파벳(구글)	445.0
HSBC	162.7	페이스북	383.2
토탈	148.9	존슨 앤 존슨	381.8
로레알	143.2	JP 모건 채이스	363.2
BP	142.3	엑손모빌	350.7
로열 더치 쉘	139.4	월마트	330.6
SAP	132.0	BoA	329.7

음영표시: 디지털기업
자료: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그림 3. 디지털혁명 이후 제조업 비중이 늘어나는 유럽



자료: World Bank,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디지털세 주요내용과 영향

디지털세는 총 150개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 적용될 것이며 특히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은 ①EU 역내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7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거나 ②1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거나 ③3,000개 이상의 온라인 비즈니스 계약을 맺은 기업이 해당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소기업에 조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EU집행위원회의 의도가 반영됐으며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대부분이 미국의 디지털기업이다. 또한 디지털세는 주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개념을 추가해 영업장 위치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따라 해당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수의 디지털기업이 절세의 목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영업장을 두고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의 원천과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 경제적 활동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대상을 디지털 경제활동에 맞춰 세분화 하였다.

디지털세 도입 현황:
EU 역내에서도
엇갈리는 의견과
미국의 반대

하지만 실제로 디지털세가 시행되기까지는 EU의 목표보다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EU집행위원회는 2020년 1월1일까지 회원국들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유럽 역내에서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회원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찬성하고 있으나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등은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유럽 역내에서 각 국가별로 법인세가 상이해 디지털 기업이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세가 높은 국가 대신 낮은 국가에 영업장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기업이 가장 많이 들어서있는 국가는 EU에서 법인세가 세번째로 낮은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조세재정 주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디지털세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자국에 위치한 디지털 기업의 조세부담이 커질 경우 경제성장 위축과 투자매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럽의 디지털세에 대해 EU가 미국 특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을 제정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미국의 디지털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조세집행과 과세대상이 아닌 수익에 대한 과세집행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EU가 역내 디지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강화와 맞물려 디지털세로 인해 EU와 미국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독일은 초기 프랑스와 함께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 찬성 입장이었지만 미국정부의 경고 후 디지털세가 자국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장을 불분명하게 바꾼 상황이다.

표 2. 유럽 국가별 법인세율

국가	법인세율(%)	국가	법인세율(%)	국가	법인세율(%)	국가	법인세율(%)
몰타	35.00	에스토니아	20.00	네덜란드	25.00	루마니아	16.00
벨기에	34.00	핀란드	20.00	스페인	25.00	라트비아	15.00
프랑스	33.30	체코	19.00	이탈리아	24.00	리투아니아	15.00
독일	29.79	폴란드	19.00	덴마크	22.00	키프로스	12.50
그리스	29.00	슬로베니아	19.00	스웨덴	22.00	아일랜드	12.50
룩셈부르크	27.08	영국	19.00	포르투갈	21.00	불가리아	10.00
오스트리아	25.00	크로아티아	18.00	슬로바키아	21.00	헝가리	9.00

자료: Trading Economics,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표 3. EU 역내에서도 엇갈리는 의견

구분	국가	주요내용
찬성	프랑스	디지털세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과 함께 디지털세에 찬성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디지털세에 찬성
	포르투갈	특별한 입장표명 부재
	영국	지식국들과 함께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
	헝가리	국제적인 협력을 선호하면서도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찬성
	폴란드	디지털세가 EU 예산에 기여하고 EU의 재정적 지원을 담보해줄 것으로 기대
결정을 못한 상황	독일	디지털세에 적극적이었던 독일은 디지털세가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체코	디지털세가 어떻게 조세혜택에 영향을 줄지 우려
	루마니아	특별한 입장표명 부재
	슬로바키아	디지털세가 동유럽 국가들보다 서유럽 국가들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
	슬로베니아	조세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EU 집행위의 제안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필요 강조
	스웨덴	디지털세 부과에 따른 반발을 우려
	핀란드	특별한 입장표명 부재
	에스토니아	현행 조세체제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라트비아	현행 조세체제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리투아니아	현행 조세체제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크로아티아	현행 조세체제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중립	오스트리아	중립(2018년 하반기 EU 의장국)
	불가리아	중립(2018년 상반기 EU 의장국)
반대	아일랜드	디지털세 도입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OECD 및 G20 회의를 통한 접근 지지
	네덜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반대 입장
	벨기에	특별한 입장표명 부재
	덴마크	특별한 입장표명 부재
	그리스	다국적기업들로부터 추가적인 투자 희망

기준일:2018.4.9

자료: Politico EU,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디지털세 도입 전망: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OECD가 관건

단기간 내에 디지털세 부과가 어려워짐에 따라 EU는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연간 전체 수익이 7억 5천만 유로를 상회하며 EU 역내에서 5천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의 매출에 대해 3%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디지털 서비스세의 주요 내용은 조세집행국가가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가 아닌 사용자의 위치(IP주소)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EU집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약 50억 유로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하지만 디지털 서비스세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요구된다. 현재 유럽경제의 대내외적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고 미국 디지털기업들이 향후 EU에 디지털 관련 투자 위축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국가간에 상충되는 이익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디지털 서비스세가 반대에 부딪히자 디지털세 도입 적극 찬성국에서는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9년 중 도입하여 1월부터 소급적용을 목표하며 영국은 2020년 4월부터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기로 제정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독자적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세 도입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에서도 검토되고 있으며 OECD에서는 공정조세를 위해 디지털세와 관련된 권고안을 제작하고 있다. OECD는 2020년을 목표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OECD 권고안에 따라 디지털세의 확산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유럽을 제외한 국가는 OECD 권고안에 디지털세 도입을 맞춰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OECD가 어떤 권고안을 언제 내놓느냐가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디지털세 도입 확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디지털세의 영향:
주류 디지털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제한적,
관세분쟁으로 확산 가능성 존재

다만, 유럽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관련 기업들의 조세부담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디지털 서비스세로 프랑스는 매출액의 3%, 영국 2%, 스페인 3%, 이탈리아는 6%를 제시하고 있으며 EU자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 역시 매출액의 3%이다.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으로 약 50억 유로의 추가세수가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약 80%(40억 유로) 정도를 GAFA에서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수준의 디지털세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주류 디지털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기업들의 유럽지역 내 점유율이 절대적인 만큼 요금인상을 통해 조세부담의 상당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세가 유럽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디지털기업의 조세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수익 감소 위험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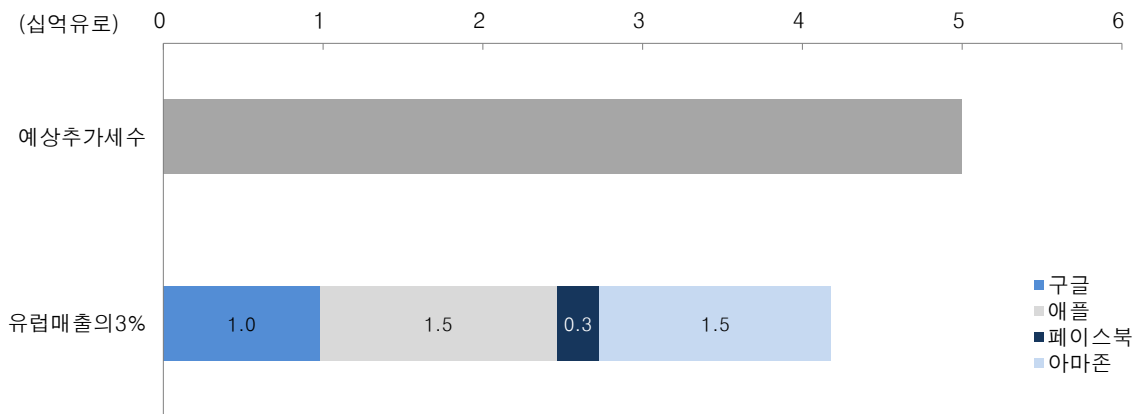
한편 미국이 디지털세를 EU의 역내 디지털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관세 형태로 보고 있는 만큼 디지털세의 진전에 따라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OECD 역시 일부 유럽국가와 EU의 법체계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디지털세 부과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독일의 우려처럼 디지털세로 인해 미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한다면 EU와 미국간 관세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4. 2017 년 디지털기업 매출과 유럽 비중

기업	총매출(백만달러)	유럽 내 매출(백만달러)	유럽 매출 비중(%)	본사 소재 국가
아마존	106,110.00	21,719.00	20	미국
이베이	9,567.00	3,609.00	38	미국
익스페디아	10,060.00	1,810.00	18	미국
페이스북	40,653.00	9,168.00	23	미국
구글	110,855.00	36,582.00	33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89,950.00	17,881.00	20	미국
넷플릭스	11,693.00	1,284.00	11	미국
REX 그룹*	7,355.00	2,642.00	36	미국
세일즈포스	10,480.00	1,904.00	18	미국
스포티파이*	4,090.00	1,170.00	29	스웨덴
트위터	2,443.00	274.00	11	미국
SAP*	23,461.00	10,415.00	44	독일
오라클	37,728.00	8,524.00	23	미국
에어비엔비		비상장 기업		
우버		비상장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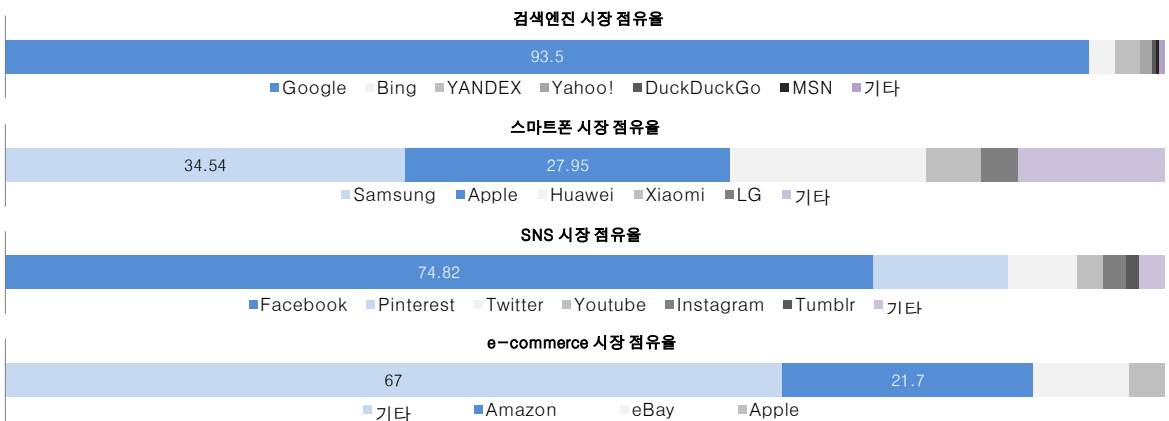
주: *는 백만유로
자료:PI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그림 4. 디지털세의 80%이상은 GAFA 에서 발생



자료: Bloomberg, European Commission,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그림 5. GAFA 의 유럽시장 점유율(%)



자료: Statcounter, Euromonitor International,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담당자: 선진국팀).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